

MONTHLY KOFA

코파의

칭호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Vol. **58**
2019/07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한·인니 정상, CEPA 11월 타결 기대 ... 新남방정책 파트너

경전철 등 인프라 사업·자동차 분야 등에서 韓 기업 인니 진출 논의 文대통령 “방산협력 원만히 추진되길” 조꼬위 대통령 “우호관계 도약 노력”



▲ 문재인 대통령과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오후 G20 정상회담장인 인텍스 오사카 내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

심 파트너로서 조꼬위 대통령 임기 중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됐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 당국 간 협의의 중추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올해 11월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이 선언되기를 기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전철 등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이 최상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대화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유제품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 조꼬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도 올해 4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도 원만히 추진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꼬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관계가 심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5년간의 재집권 기간에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

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조꼬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발산업협회, 중국 신발공장 인니로 이전 가능성 높아 미중 무역전쟁이 기회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Aprisindo의 피르만 상무 이사는 “관세 인상으로 중국산 신발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높을수록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Aprisindo는 올해 목표 수출을 전년 대비 10% 증가한 56억 달러로 설정했다. 향후 5년은 1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수출액을 현재의 2배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해 가죽제품·신발의 성장률은 9.42%에 달한다. 국내 총생산(GDP)의 성장률 5.17%를 크게 웃돌았다.

인도네시아 신발산업협회(Aprisindo)는 중국의 제화업체가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앞서 발표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대상 산업에 신발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은 여전히 중국이 제일 높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계속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기회가 오고 있다.

현지 언론 인베스트 데일리

인니, 제조업 인재육성·연구개발 비용에 세금우대



▲ 인도네시아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인세(PPh) 면세 조치에 관한 정령 ‘2010년 제94호’를 개정해 인재 육성과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세금우대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적 자원 강화 및 투자 유치가 목적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개정령에는 인재 육성 비용에 최대 200%, 연구개발 비용에 최대 300%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스리 재무장관은 “개정령 초안은 이미 완성됐다. 다르면 경제조정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사업자협회의 하리야디 회장은 “사업자들이 인재 육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액은 2014년 전체 투자실현액 중 4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40%, 2018년에는 31%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23%까지 떨어졌다. 2018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1,825만명으로 집계됐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글로벌 투자자들, 인도네시아에 눈길... 신용등급 상향 호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처로 인도네시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닷케이아시안리뷰가 16일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가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구조개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미르자 아디티야스와라 부총재는 한 현지 매체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국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9조1천억 루피아(약 7천553억 원)에 이른 다며, 자금 유입세가 "호조(good)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르자 부총재는 유입된 자금의 약 80%가 인도네시아 정부채에 투자됐다고 전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유출에 시달렸다. 국제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루피아 가치는 한때 약 10% 하

락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현재는 추세가 뒤바뀌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2014년 10월 조코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약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규제개혁,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등으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120위에서 작년 73위로 훌쩍 뛰었다. 위도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에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면서 개혁 작업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닷케이아시안리뷰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안정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인도네시아의 미·중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니 정부, 수출입 관세 미납에 대한 벌금 규정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입업자의 관세 미납에 대한 벌금 제도의 규정을 개정했다. 18일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규정이 불분명하고 수출입업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불만을 접수 받아 미납 비율 산출 방법 및 미납율에 따른 벌금액의 계산 방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됐다. 새로운 규정은 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통관 분야의 벌금 적용에 관한 법령 '2008년 제28호'에서 개정령이 되는 '2019년 39호'를 5월 14일자로 공포했다. 기존의 규정은 지불 관세액의 부족 비율에 따라 100~1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행령은 산출 기준이 되는 미납율을 가산된 벌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납율에 따른 벌금액도 5단계(미납율 25% 미만~100% 이상)에서 10단계(동 50% 미만~450% 이상)로 개정했다.

[기고] 독일로 다시 돌아온 신발공장

싼 인건비를 찾아 동남아로 갔던 유명 스포츠브랜드 공장이 20년 만에 독일로 다시 돌아왔다. 신발 50만 켤레를 10명이 생산할 수 있어서다. 주요 산업이 돌아오면 국내 부품과 소재산업이 흥한다. 고객맞춤형 제품뿐 아니라 다품종 복합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용어중 하나다. 정보통신과 제조기술을 융합한 공장은 장비 부품들이 서로 소통하며 최적의 생산 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한다. 정부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제조혁신 예산만 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전문운영인력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중기재정 확보도 나섰다. 산업혁명은 항상 인적자원개발이 선행한다. 18세기 말 1차 산업혁명 시절 농업과 증기 기술로 만들어진 '근대적 공장'은 기계기술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2차 산업혁명에는 과학적 관리법, 전기와 석유, 3차 산업혁명 정보기술과 로봇 자동화 기술 인력이 공장에 들어왔다. 대규모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구 각국은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했다. 공교육 확대로 문맹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식은 일반화됐다. 높아진 지식수준으로 정치와 시민의식도 올라가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전제왕권에서 시민사회로 변혁에 성공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공식을 따라 인적자원개발에 힘써 오늘날 세계에서 탈식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극소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4차 산업혁명시대 앞에 섰다. 지난 시절 계속된 생산성 증가는 선택적 소비를 만들었다. 이제 사람들은 매일 먹는 '밥'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그날 입맛에 맞춘 '요리'를 소비한다. 정보통신과 인공지능기술은 실시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선택적 소비를 더욱 손쉽게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고급 인적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은 산업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학교에서 배출한 인재가 산업

에서 필요한 인력이 되지 않는 노동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도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하고, 학교는 이론교육을 보완하고,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 훈련 제도다.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4년 시작한 일학습 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는 올해 3월까지 누적 8만 1998명에 달하며 참여기업도 1만 4360개소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참여 기업 대상 설문한 결과 학습근로자 직무수행 능력이 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 48.5%에서 이후 81.2%로 좋아졌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과 학교를 더욱 하나로 묶어 나간다.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를 통해 일학습 병행 유형 중 하나인 고속련 일학습 병행(P-Tech)을 2022년까지 60개 학교로 늘리기로 했다. P-Tech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의 고속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 과정이다. 기업핵심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진출이 빠른 전문대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직업훈련이 나아갈 방향과 현장의 운영을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현장 훈련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연주하기 전 거문고 줄을 바꿔 맨다"는 뜻의 해현경장(解弦更張)은 사회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튼튼히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세계에 보여준 혁신성장을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2019-06-03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관리센터)

LIGHT+
The Solutions of LED

LED 조명

**인니 현지 생산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COPINDO, ISO9001 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펙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HIGHBAY UFO



LED TUBE T8



SCTC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6%로 동결...지준율은 인하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6%로 동결했다.

20일 다우존스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이날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인 7일짜리 역레포 금리를 종전대로 6%로 결정했다.

BI는 작년 11월 금리를 25bp 인상한 후 7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BI는 글로벌 금융 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6%로 0.5%포인트, 샤리아은행(이슬람을 법에 의한 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4.5%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오후 4시 54분 기준 달러-루피아 환율은 뉴욕 전장 대비 0.37% 하락한 14,210루피아를 기록 중이다. 달러-루피아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대비 루피아 가치는 오른다.

섬유업체협회, 섬유 하류산업 기계 개·보수에 100조 루피아 필요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는 섬유 하류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천 대의 생산기계 개·보수를 위해 100조 루피아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기계의 노후화로 제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현지 언론 인베스트 테일리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API의 아데 협회장은 “정부는 상류산업만 보호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유입으로 하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생산기계 쇄신 지원 프로그램 재개

와 직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하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섬유 하류산업의 생산기계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연간 약 1,000억 루피아의 예산을 할당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016년 이후부터 취소됐다. 아데 회장은 “내년에는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섬유·섬유제품(TPT)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32억 2,000만 달러이었다. 아데 회장은 “올해는 칠레와 호주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하기 때문에 수출액은 142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피 돌기 빅뱅



조기조 교수

중국이 막아놓아도 24억이 넘게 사용한다는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페이스북은 18일 블록체인 '리브라'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같은 이름의 암호화폐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를 신설하고,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리프트, 코인베이스 등 28개 기업이 참여하는 독립 컨소시엄, '리브라 협회'를 구성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받는 곳 어디서든지 리브라가 사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칼리브라 월렛(전자지갑)이 은행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인증 및 사기 방지 기능과 비정상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 혁신적인 금융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칼리브라는 리브라의 통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확보하고, 각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를 준수하며,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전 세계 법집행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도 규제 준수를 위해 신원 인증은 진행하지만 금융 정보와 소셜미디어 계정은 연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결된 세상에서 이동성이 강조되다 보니 주체가 컴퓨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5G 시대를 맞이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가 되고 있다.

다시 경제의 피 돌기(혈액순환인 화폐와 신용을 생각해 보자.

지하경제를 잡지 못하는 지금의 화폐제도도 문제이지만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통용되어도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발행권(주조권)을 중앙은행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기에는 너무 커버린 암호화폐는 블록체이라는 기술로 분산 저장된다. 이 흐름을 살펴보자.

2000년 들어 인터넷 뱅킹이 등장했다. 보안 때문에 비밀번호와 암호 또는 보안카드에 공인인증서까지 끌어올렸다. 도장 대신에 전자서명이라는 것도 등장했다. 이용이 거북스럽기는 했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24시간 이용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그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 등장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새로운 의미의 인터넷 은행이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핀테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 간편 송금·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앱을 설치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갯돈인 IMF와 계주 미국에 대하여 중국은 3년 전인 16년 1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만들었다. 당연히 중국이 계주가 되고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고자 하였다. 페이스북을 차단하는 중국에서는 쓰이지 못하겠지만 '리브라'가 경제에 빅뱅임엔 틀림없다. 리브라 코인을 전승하면 앱은 현지 법정화폐로 잔고를 보여주고, 해외 송금

시, 받은 금액을 현지 법정화폐로 표시해준다. 각종 접촉식, 비접촉식 결제는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여전히 은행의 모계좌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리브라 코인을 사두면 전자지갑에 들어가니 은행은 개입할 일이 없다. 정치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쉽고 편리한데다 수수료도 안 든다는데 누가 어찌 막겠는가?

카드논쟁 은행계좌가 없는 화폐경제의 사람들이 수도룩하다. 계좌가 있어도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용경제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피가 돌지 못했다. 이제 디지털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인터넷 뱅킹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이동하는데 수수료관하던 은행들은 뒤통수를 맞고 있다. 비행기로도 10시간을 넘게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데 누가 파도에 시달리며 열흘이나 뱃머미를 하겠는가?

조기조(曹基祚 Kyo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대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DIVISION

공장이 무더워서 일하기 힘들다면...
EVEL HVLS 실링팬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대만족 하실 것 입니다. !!!



인도네시아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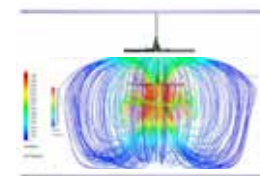


제품특징

- 이태리에서 원천 제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생산한 저속 고품량, 산업용 명품 천장형 공조팬
- 전기료 부담 최소 (750W / 대형선풍기의 3배)
- BLDC 모터 장착 - 소음과 내구성 탁월
- 건기/우기철 1년 내내 사용 가능 (건기철 : 뛰어난 더운 공기순환과 냉방효과, 우기철 : 습도제거와 쾌적한 기류 제공)
- 보증기간 : 핵심부품인 모터류 20년 사용보증, 제품 무상보증기간 : 3년

제품스펙 (Fan 직경 4M 기준)

- 제품라인업 : 2.2 ~ 7.3M (Fan Diameter 기준)
- 산업용(공장) 추천 제품 : 4 ~ 5M (Fan Diameter)
- 설치 수직높이 : 6 ~ 8M (팬 위치와 바닥높이의 간격)
- 설치 수평간격 : 16~ 18M (설치 제품간의 추천 간격)



- * Weight : 85KG
- * Fan Speed : 100 Rpm
- * 380/220V 설치 가능
- * Control System : 유, 무선방식 가능 (무선리모콘은 옵션)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GRAND WI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 스마랑 지점 Mr. PARK 0811 -850 -5540



▲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재무부 웹사이트]

인니 · 인도, 미중 분쟁을 기회로... “중국서 나오는 기업 유치전”

투자환경 개선 · 특혜 관세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경제성장 속도 둔화...금리 인하 여지”

국 밖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기에 이들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블룸버그 주최 포럼에 참석하기 전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투

자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 동등하거나, 또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혜 관세, 면세(또는 감세) 기간 보장 등의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도 관련 기업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특혜 관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인도 상공부는 구체적으로 전자기기, 가전제품, 전기차, 신발, 장난감 등의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해안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계획은 제조업 비중을 25%로 끌어올리려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드라와티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하고 있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인도네시아의 수출에 타격을 미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성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5.17%~5.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5.3%로 예상했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성장 속도 둔화는 물론 경상수지 적자 압박으로 인도네시아를 환율 위험에 노출하고 있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올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움직일 여지가 많다”며 “그들은 적절한 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최근 금리를 인하했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솔 생산업체 오소라이트, 획기적인 성능과 친환경 제작 방식 추구에 앞장 서다



오소라이트 (OrthoLite)는 1997년 풋웨어 기업가인 Glenn Barrett이 설립했다. Glenn Barrett은 신발의 안쪽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대만으로 향하는 여행 도중 신발 안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적인 기술인 오픈 셀 PU 폼 (open-cell PU foam)을 도입했다.

다음은 오소라이트의 C.B. Tuite 최고판매책임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소라이트는 최고 러닝화 브랜드용 인솔 제공업체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오소라이트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Tuite: 세계 최고 풋웨어 브랜드 350곳 이상의 수직적 제조 파트너로써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반의 생산 역량을 쇠신했으며 현재는 남미와 유럽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당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또 다른 우선사항은

기술 혁신이다. 당사는 소재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파트너 브랜드와 긴밀하게 협력해 OEM 방식의 획기적인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당사의 컴포트 기능 솔루션의 포트폴리오는 “협력을 통한 혁신” 모델을 통해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 제품의 로드맵은 모든 카테고리 전반에서 친환경과 가치, 기능 혁신을 전달하는 것이며 러닝 카테고리 안팎에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시장에서 오소라이트의 입지는 어떠한가?

당사는 브랜드 파트너사들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성능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당사에 투자할 브랜드를 찾고 있다.

오소라이트는 파트너사들에게 색상과 밀도, 경도와 반동 등 오소라이트의 기술을 맞

춤 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을 부여하고 있다. 최고급 러닝화 관점에서, 카테고리 브랜드 중 50% 이상에서 당사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러닝화와 관련해 오소라이트에서 바라보는 주요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친환경이라는 주제가 상품 기능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에만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오소라이트는 모든 상품 전반에 새로운 친환경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비용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맞춤화 시장은 거대하다. 당사의 브랜드 파트너들은 인솔과 미드솔 기능을 결합해 특정한 수준의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제작 능력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도 특히 러닝화 카테고리는 경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오소라이트만의 새로운 울트라라이트 (UltraLite) 기술을 도입해 경량의 속성을 강조했다.

오소라이트에 맞춤형 및 3D 프린팅 사업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소라이트는 항상 혁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신 기술을 계속 개발할 것이지만, 대량 생산자 관점에서 그

그리고 생산 과정과 상품 모두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생산 후 폐기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재활용 시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특허 출원이 임박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술과 함께 100% 재활용 기술을 상업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 후 폐기물 고무를 실제 공정 과정의 기술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는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해 인솔 기술 분야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오소라이트의 향후 행보는 무엇인가?

또 다른 흥미로운 트렌드는 투자 공학 대 비용 공학이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일부 브랜드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마진을 늘리기 위해 상품의 사양을 줄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소재와 획기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브랜드만이 승자가 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출처: Running Insight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SM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무역분쟁에 中 기업도 동남아 진출 가속화...韓 기업, 더 뛰어아

아세안 대표부 '팀 코리아' 포럼...20여명 한자리
임성남 대사 "개별국뿐만 아닌 아세안 큰 틀로 봐야"

중국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기 전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덕규 코트라 신남방 비즈니스데스크 차장은 17일 "무역분쟁으로 중국기업도 동남아시아로 나올 판"이라며 "한국도 아세안에서 무엇을 더 할지 고민하고 뛰어아 한다"고 말했다.

복 차장은 이날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쉐라톤호텔에서 개최한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에서 신남방 시장진출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복 차장은 "그동안 동남아



▲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자카르타=연합뉴스]

개발이 부진했던 것은 교통·통신 등 인프라 구축 문제였는데,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 투입이

이뤄져 아세안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 소비시장의 특징으로 ▲ 젊은 소비층 ▲ 도

시형 소비문화 ▲ 할랄 등 종교적 소비패턴 ▲ 유통채널 확산 ▲ 여성과 유·아동 제품 소비 증가 ▲ 글로벌 트렌드 가속화를 꼽았다.

복 차장은 "한류는 이미 성장을 할 대로 해서 한계점에 도달했기에 더 고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한류에 할랄을 결합한 개념을 제시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남아 국가에서 온라인·홈쇼핑·모바일을 통한 유통채널이 확산하고 있기에 한국 기업들도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라며 "중국기업들이 더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이재호 전문연구원은 "아세안 국가 간에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 공급의 분절화 및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아세안 전체를 보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것을 아세안에 맞고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첫 포럼을 주관한 임성남 주 아세안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아세안이라는 더 큰 틀과 맥락 속에서 양국 관계를 심도 있게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사는 "아세안 국가들이 역내 이슈를 개별국이 아닌 전체의 틀로 바라보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그러한 시류와 맥락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안창섭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배응식 세계한인무역협회 인니지회장, 장은석 지상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한인 경제인과 공공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뉴발란스 멤버스워크' 프리오픈...의류·신발 1000여종 최대 81% '할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뉴발란스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뉴발란스 멤버스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날 포털사이트엔 '뉴발란스 멤버스워크'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랐다.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뉴발란스는 신발·의류 1000여종을

최대 81%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뉴발란스 멤버스워크'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특정 요일에 할인 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8일 990데이, 19일 썬머(SUMMER) 데이, 20일 우먼스(WOMEN'S) 데이, 21일 코트화 데이, 22일부터 24일까지 패밀리(FAMILY) 데이로 구성됐다.

특히, FAMILY 데이는 48시간 한정 판매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해당 요일마다 정해진 상품들을 최대 81%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뉴발란스 멤버스워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이버 검색창에 뉴발란스 멤버스워크를 검색하면 정각마다 선착순 50명에게 1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한다.

접속 후 30분마다 자동 종료 처리되며 검색을 통해 재입장해야 이벤트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 웹에서만 가능하고, 뉴발란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한국경제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신발관련 업체들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58-9060-0962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맞춤형 인솔, 시장에 정착할까?(1)

한때는 지속적이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인솔 부문이 맞춤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량 맞춤형 기술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3D 풋 스캐닝과 인솔 프린팅 기술이 최첨단 되면서 러닝화 전문 채널에서 필요한 부분이 된 것이다. 맞춤형 인솔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수백 달러를 호가했으며 전문가에 의한 주물부터 제작 과정 전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한편, 최신식 3D 스캔 및 프린트 기술은 켈레당 150달러 선으로써 매장 내에서도 매우 꼼꼼하게 발을 스캔할 수 있으며 완제품도 1~2주 이내에 제작돼 배송까지 완료될 수 있다.

러닝 전문 채널의 인솔 부문

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 중 하나인 수퍼핏은 HP 기술의 고급 핏스테이션을 사용해 ME3D 3D 프린트 맞춤형 인솔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핏스테이션은 발과 발목을 3D 스캔하며 발의 동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걸음걸이도 분석한다. 맞춤형 인솔을 디자인 및 제작하기 위해 정교한 생체측정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맞춤형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닌 풋웨어 브랜드와 리테일 업체에 맞춤형 인솔을 제안할 수 있다. ME3D 3D 프린트 맞춤형 인솔은 프리미엄 OTC 인솔만큼의 수명 □ 러닝화와 유사한 약 500마일 - 을 가지고 있으며 소매가는 149.95 달러다.

“당사는 현재 미국 시장에

서 30여개의 핏스테이션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180개를 추가할 예정” 이라고 수퍼핏의 Matt Gooch 상품 매니저는 말했다. “당사는 4분기까지 유통 채널을 확장해 총 150개 매장을 운영할 것이다.”

수퍼핏은 미국을 넘어 유럽과 캐나다까지 핏스테이션을 확장하길 바라고 있다. 수퍼핏의 Eric Hayes CMO는 “일본에 독점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영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고 밝혔다.

수퍼핏은 3D 프린팅 전문 업체인 HP와 파트너십 체결 이외에도 직접 연결 (direct-attach) 방식 및 re 스캔 전문 풋웨어 제조업체인 ESSMA와 제휴했다. rs 스캔이란 압력 데이터를 수집해 3D 프린



▲ 에이트렉스의 3D 프린트드 커스텀 오쏘틱스 (3D Printed Custom Orthotics) 는 개인의 발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고안됐다.

트 인솔 같은 물리적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당사는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작업에 파트너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품질

과 전문지식, 업계 최고 역량을 가진 파트너사들을 지원해 전과 다른 수준의 맞춤형 인솔을 제작할 수 있었다.” 고 Gooch 상품 매니저는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www.ekyungwon.co.kr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경원 콤프레샤

경원 콤프레샤는?

-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형 압축공기
-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스마트한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C Version

운전상황 Monitoring

-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EPARA OFFICE	KORE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 ://www.dbkw2000.com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이상 내야

유학생은 월5만6천원 부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천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반발이 크다. 지금보다 건보료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천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을 뿐이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

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왔다.

2018년 12월 18일 이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HANSHIN AIR COMPANY

PT. KEINTECH

PT. BIO-TECH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신주,철..)
TPR,PU,PVC

금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코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스크린

인쇄

패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해외뉴스

 뉴발란스, 퓨얼셀 라인 출시...
“사소한 점이 중요하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뉴발란스가 새로운 플랫폼을 토대로 한 새로운 기능화를 출시했다. 뉴발란스 R&D팀은 “운동선수의 생체역학을 10분의 1초마다 미세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세한 세부내용 (예를 들어, 형태, 모양, 효율성, 착용감)의 모든 측면을 해결해 전체적인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에서 퓨얼셀 (FuelCell)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다. 퓨얼셀을 개발한 뉴발란스의 이노베이션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번

상품으로 전문 운동선수들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의 특성 중 하나는 기능성 발포고무로써, 뉴발란스는 역대 개발한 상품 중 최고의 반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퓨얼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 퓨얼셀 5280. 스파이크가 없는 러닝화로써 지면에 처음 접촉했을 때 신축성을 느끼고 발을 뗄 때 추진력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탄소섬유 플레이트가 특징이다. 그리고 경량의 하이포니트 (Hypoknit) 어퍼를 사용했다.

- 퓨얼셀 리벨. 발 앞부분에 높은 반동 속성을 주기 위해 퓨얼셀 기술을 사용했다. 뉴발란스에서 가장 빠른 로드 레이싱 운동선수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 모델은 견인력이 있는 아웃솔이 특징이다.
- 퓨얼셀 프로펠. 부분 지탱을 위해 트레이스 파이버 (Trace Fiber) 어퍼 및 경량의 고무와 엔듀런스 (NDurance) 아웃솔을 사용했다. 빠른 선수들을 위해 디자인했다.
- 퓨얼셀 에코. TPU 힐 카운터와 플렉스 퓨얼셀 미드솔을 사용해 간소하게 디자인했다. 퓨얼셀 리벨은 ‘세계 러닝의 날’에 맞춰 6월 5일 가장 먼저 출시하고 나머지는 가을에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뉴발란스는 러닝과 농구, 테니스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풋웨어 부문에 퓨얼셀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Footwearbiz.com

 에코, BASF와 손잡고 풋웨어 3D 프린팅 솔루션스 개발



독일의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자회사인 BASF 3D 프린팅 솔루션스가 풋웨어 브랜드 에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풋웨어 생산 방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여기에 오픈 플랫폼 방식의 프린터 제조업체인 오리진이 가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BASF의 울트라큐어

3D 광중합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덴마크에 위치한 에코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뛰어난 정확성과 기계적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BASF는 밝혔다.

3사가 합작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신발의 대량생산에 이용 가능한 첨가제를 제조하는 것이다. 오리진의 프린팅 시스템과 BASF의 울트라큐어

어3D 소재를 결합해 고속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표면의 안정성도 뛰어났다.

한편, 5월 21 - 23일에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RAPID + TCT 첨가제 제조 박람회에 참가한 오리진의 부스에는 BASF 3D 프린팅 솔루션스의 대표도 참석했다.

 언더아머, 1분기 실적 발표...
업계 기반 공고해져



미국의 풋웨어 및 스포츠, 캐주얼 어패럴 브랜드인 언더아머가 3월 31일로 종료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언더아머의 1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2% 성장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사의 1분기 결과는 프리미엄 기능성 운동 브랜드인 당사가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운동선수들에게 획기적인 상품을 전달하고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언더아머의 Kevin Plank CEO는 말했다.

“언더아머는 보다 강한 브랜드이자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도입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1분기 검토
올해 첫 3개월 동안 언더아머의 수익은 2% 상승해 총 1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도매 수익은 5% 성장해 8억1,800만 달러를 달성한 반면 소비자 직접 판매 수익은 6% 하락해 3억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북미 지역 수익은 3%

하락해 8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해외 사업은 12% 증가해 3억2,8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해외 사업 내에서도 EMEA 지역 수익이 3% 증가했으며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25%, 라틴아메리카에서는 6% 성장했다.

어패럴 수익도 1% 증가해 7억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러닝화 카테고리의 강세에 힘입어 풋웨어 수익은 8% 증가한 반면 액세서리 수익은 백팩과 가방 판매가 저조해 11%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영업 수입은 총 3,500만 달러를, 순이익은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전망
향후 북미에서의 수익은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외 사업에서도 낮은 두자리 수 성장을 바라고 있다. 영업 수입은 2억2,000만 달러를, 주당 수익은 0.33~0.34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출처: worldfootwear.com



kakaoVX
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VF 코퍼레이션, 1Q 순이익 138억 달러 달성... 아웃도어 부문 성장이 주요 동인

VF 코퍼레이션이 사업연도 2019년 3월 31일 기준 순이익이 138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회계연도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다. 텀버랜드와 노스페이스, 아

이스브레이커와 스마트울 등의 아웃도어 부문이 6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해 전년대비 9% 성장한 것이 동인이 됐다. 또한, 반스와 나파피리 등을 포함한 액티브 부문도 47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해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VF에 따르면, 반스의 수익이 24% 성장한 반면 노스페이스는 9%에 그쳤다. Steve Rendle 최고경영자는 “2019 회계연도는 VF의

120년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점으로써 진 사업 부문을 독자적으로 스핀오프할 계획이다. 엄청난 업무량이 따르겠지만

그만큼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Footwearbiz.com



맞춤형 인솔, 시장에 정착할까?(2)

3D 프린팅 기술로 강화하다



▲ HP 기술로 만든 슈퍼핏의 핏스테이션 (FitStation)은 정확한 맞춤형의 생체측정 속성을 사용해 ME3D 프린트 인솔을 디자인했다.

수퍼핏의 ME3D 맞춤형 인솔은 편데일에 위치한 플로우빌트 제조 시설에서 제작됐다.

이 공장은 3D 프린팅, 멀티색 선 사출 성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빠른 속도로 대용량 맞춤형

춤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로써, 인솔의 적하와 재적재 시간은 일주일 가량 소요되고 있지만 목표는 4 ~ 5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9일, 수퍼핏은 사용자의 체중과 역동적인 압력 패턴을 토대로 발의 크기와 형태에 맞는 기하학을 적용하고 싱크로 리커버리 폼 (Syncro Recovery Foam)을 사용해 맞춤형 샌들인 ME3D 에프터스포츠 슬라이드를 출시했다. 소매가격 99달러인 이 슬라이드는 핏스테이션 기술을 사용해 플로우빌트 제작됐다. 그리고 수퍼핏은 HP 기술로

핏스테이션을 활용한 최초의 완전 맞춤형 러닝화인 제네시스 (Genesys) 베타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브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브룩스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퍼핏은 다른 신발 브랜드에 수퍼핏의 디자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셰이프트 (Shaped)를 시작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최초의 상품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수퍼핏의 셰이프트는 러닝화와 캐주얼화, 작업화, 아웃도어, 사이클, 축구화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파트

너사는 2019년 말 혹은 2020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0년, 당사는 디자인과 미드솔을 맞춤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1년까지 발의 형태에 맞춘 어퍼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 Hayes CMO는 말했다. “그러나 맞춤 제작은 신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향후 5년 내, 기술 발달을 통해 글러브와 헬멧, 어퍼럴 같은 상품도 맞춤화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흥미롭게도, Hayes CMO는 이 기술의 발달은 산업혁명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사람을 위한 단 하나의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더핏, 힐라코리아에 신발 사이즈 추천 솔루션 공급

더핏(대표 김현호)이 신발 사이즈 추천 서비스를 힐라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공급했다. 더핏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이즈 추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힐라코리아는 더핏 솔루션을 도입해 사이즈 착오로 인한 교환/반품을 줄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쇼핑은 소비자 일상 생활에 스며든 지 오래됐지만 옷, 신발 등 패션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처럼 착용감을 확인하고 구매하기 어렵

다. 더핏은 이러한 점에 착안했다. 추천 솔루션을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에 제공하며 기업과 소비자 불편을 해결해주고 있다. 더핏 사이즈 추천 솔루션은 더핏과 제휴돼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더핏이 제공하는 사이즈 추천 버튼이 나온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소비자 발 길이 혹은 소비자가 보유하는 다른 신발 제품과 비교해 구매하려는 상품 사이즈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단순한 사이즈 비교는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착용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더핏 솔루션을 적용한 기업은 사이즈 교환 및 반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의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통해 충성 고객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소비자 구매 패턴 및 특성에 대한 전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김현호 더핏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 사이즈 교환으로 인한 배송 및 반품비, 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하반기 내 의류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토털 브랜드 MCM의 전략 - 다음 행보는 풋웨어다!



▲ MCM 2019 봄 컬렉션 청키 Himmel 스니커즈 (chunky Himmel sneaker)

MCM이 1976년 뮌헨에서 론칭됐을 당시, 록 스타와 유명인들이 먼저 이 브랜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당시의 트렌드이며 부유한 여행족들은 설립자 Michael Cromer Munchen가 출시한 트렁크와 여행가방, 가죽 제품들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됐고 그들처럼 보이길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그 뒤를 쫓았다.

“화려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외향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저 그런 사치품과는 다른 종류였다.” 고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Scho.nberger가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지만, MCM은 아직도 젊은 트렌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MCM이 론칭되고 40여년 이상 흘렀지만 MCM의 명성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풋웨어와 고성복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내가 MCM에 합류하고 부여 받은 첫 임무는 MCM을 토털 브랜드로 자리잡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풋웨어 부문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했다.” 고 Scho.nberger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는 말했다. 아디다스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였던

Scho.nberger는 7개월 전 MCM에 새로이 합류했다.

MCM의 경영진은 현재 허투루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MCM 2019 봄 컬렉션 샴페인 (campaign), 모델 Peggy Gou.

MCM은 지난해 6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열린 피티 워모 (Pitti Uomo)에서 2019 봄을 겨냥한 최초의 RTW, 코냑 브라운과 화이트 모노그램 색상의 네온 러너 샌들과 청키 대드 슈즈를 선보였다. MCM의 남성 및 여성 스타일은 이미 이전부터 성공적인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제품 전면에 MCM의 시그니처인 로고를 강조했다. 현재 스포츠웨어 부문으로의 확장도 계획하고 있지만 가죽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신발도 선보일 예정” 이라고 Scho.nberger는 말했다. 2020년 봄에는 라인을 더욱 확대해 남성과 여성 부문을 독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내에서 풋웨어 부분은

가장 개발이 미진한 부문이다. 따라서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고 MCM 아메리카의 Patrick Valeo 회장은 말했다.



▲ MCM 2019 봄 컬렉션 패션쇼

Valeo 회장은 4년 전 MCM에 합류한 이래 풋웨어 부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레리나 같은 실루엣을 강조한 슬라이드와 웨지 힐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잠재력은 충분해 보인다. 2018년, MCM 리테일 사업에서 풋웨어 부문은 5%를 차지했다. “올바른 전략을 세운다면 20%도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Valeo 회장은 말하면서 풋웨어 부문 판매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149%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MCM은 현재 연간 판매 수익이 7억 달러에 달하며, 취약한 카테고리에 확대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10억 달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브랜드를 인수한 한국 기업가 김성주 회장은 본사를 취리히로 옮기고 운영을 분산화했다.



▲ MCM x 퓨마 컬렉션

명품 마케팅 컨설턴트인 Kathleen Ruiz는 MCM이 여러 해에 걸쳐 “창의적인 마케팅과 브랜딩을 활용해” 자체 특성을 성공적으로 강화했다고 평했다. “MCM의 힘은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과다 노출하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Ruiz는 말했다. “MCM은 지금도 진화 중이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다.”



▲ MCM x 퓨마 스웨이드

지난 해, MCM은 퓨마와 협업을 통해 트랙슈트와 스니커즈 컬렉션을 출시했다. 당시 편집자와 스타일리스트, 스트리트웨어 유행 선도자들의 반응은 성공의 신호탄을 쏘았다.

그리고 미디어들은 비온세와 제이-Z의 뮤직비디오 “Ape\$**” 에서 로고 뷔스티에와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해 MCM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스타일리스트 겸 디자이너 Misa

Hylton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 MCM은 명품을 80년대와 90년대 뮤직 차트를 점령했던 뮤지션들을 위한 맞춤형 스트리트웨어로 고쳐 사용한 Dapper Dan 덕분에 힙합 뮤직계의 중심이 됐다.



▲ 2019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MCM 로데오 드라이브 그랜드오프닝에 참석한 Bella Thorne

Dapper Dan의 고객 중 한 명인 LL Cool J는 MCM이 비버리힐스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했을 때 방문했던 게스트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팝스타 Billie Eilish와 여배우 Bella Thorne도 MCM의 론칭 파티를 축하하러 온 게스트였다.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인 Mikiel Benjamin은 자신의 고객들이 MCM이 만들어내는 홍보를 통해 혜택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MCM이 디자인 하는 방법은 다른 브랜드와는 사뭇 다르다. MCM은 여러 브랜드 및 유명인들과 협업을 할 줄 알며 그 반향도 크다.” 고 Benjamin은 말했다.

패션 디자이너 겸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Talia Coles은 젊은 세대 중심적인 MCM의 디자인이 포화된 시장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MCM만의 특징은 ‘정체성’ ” 이라고 Coles은 설명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